



뇌신경센터  
Neuroscience Center

알츠하이머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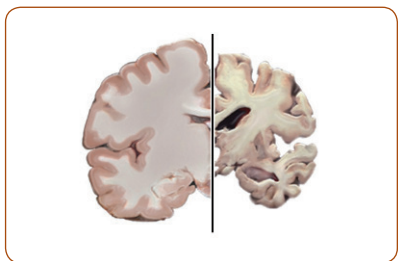




## 알츠하이머병이란?

알츠하이머병은 이상 단백질이 뇌 안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질환입니다.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인지저하가 5~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. 가능한 한 조기에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알츠하이머병의 발생기전은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침착하여 뇌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이러한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병리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. 유전적, 환경적 요소도 영향을 미칩니다.



- ▲ 정상인의 뇌(좌)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(우)  
알츠하이머병에서는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대뇌 실질의 위축이 나타난다.



## 알츠하이머병의 증상

### 기억장애



알츠하이머병의 주된 증상은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. 기억장애가 오면서 방금 들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. 중요한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가스 불 끄는 것을 잊어버려 음식을 태우기도 하고, 사람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. 병이 진행되면 가족이나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.

### 판단력 장애

1+1=?

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.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고집이 생기고,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.

### 언어장애



이해력과 표현력이 떨어져 의사소통이 어려워집니다.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'그것' 등의 단어로 대체합니다.

## 시공간 능력장애



방향감각이 떨어져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늘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운전할 때도 길을 헤매거나 접촉사고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.

## 행동증상



일어나지 않은 일을 있었다고 믿는 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누군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믿는 도둑 망상이 가장 흔합니다. 목적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배회증상이 있거나 안절부절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. 헛것을 보는 환시가 생기거나 가족과 주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.

## 우울과 감정변화



우울감이 나타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

## 진단과 치료

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평가를 위한 신경 심리검사와 뇌 영상검사, 혈액 및 소변검사가 필수입니다. 더 자세한 평가를 위해 특수검사(뇌척수액 검사, PET 검사)를 시행하기도 합니다.

알츠하이머병을 근본적으로 완치시킬 수는 없지만, 증상 호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. 인지기능 활성을 위해 콜린성 약제, NMDA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고, 이상행동과 감정 문제를 조절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알츠하이머병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질환입니다. 따라서 상담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며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들의 존엄성 있는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.





**1899-0001**

**의정부**

평일 08:00~17:00

**대전/노원/강남**

평일 08:30~18:00 토요일 08:30~12:30

[www.emc.ac.kr](http://www.emc.ac.kr)

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엔 ‘을지’가 있습니다

**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**

**대전을지대학교병원**

**노원을지대학교병원**

**강남을지대학교병원**